

# “꾸준한 성장, 지역농산물에 가치를 더하다”

##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역대 최고 실적 달성... 지역농업에 새 활력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가 2018년 운영 시작 이후 역대 최고 가공률과 생산량을 기록하며,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가동률 2배 증가... 성장은 '지금부터'

2025년 6월 기준 가공센터의 가공률과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규 품목 제조보고 또한 7건이 이뤄지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 생산되는 전 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수치상의 개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운영과 기반 구축 강화의 결과다.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이어왔다. 2022년 시설증축을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HACCP 4종 인증을 완료하고 가공 인력의 상시 거주체계를 도입했으며, 대표 상품인 '매실워터젤리'의 집중 생산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촌진흥청의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시스템과 첨단 장비를 도입, 생산 효율성과 위생 안전성 모두를 향상시켰다. 센터는 2025년 5월부터 해당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7월 중으로 최종 공식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산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끊임없는 도전

가공센터는 광양시 대표 특산물인 매실, 돌배, 딸기 등을 활용해 워터젤리, 음료, 오일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왔다.

이 중 '매실워터젤리'는 전략적 집중 육성을 통해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납도장터와 고향사랑기부제 탑재로



로 판매되는 등 광양산 매실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과자류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며, 농업과 가공이 어우러지는 6차 산업화의 모범사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운영 주체인 광양농부영농조합법인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상품화로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왜 가공인가?” 농업의 미래를 열어  
농산물 가공은 단순히 원물을 가공하는 ‘처리 과정’이 아니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선 농산물은 계절과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해 출하 시기에 따라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가공을 통해 저장성과 유통 기한을 늘리면 시기와 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해진다. 젤리, 음료, 과자류 등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함으로써 시장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농산물을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브랜드 자산으로 끌어올리는 기회가 된다.

가공품은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 채널로 쉽게 진출할 수 있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수익 증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가공센터는 농식품 가공교육(기초반·심화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법인인 광양농부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광양시 농업인에게 가공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농업의 산업화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는 이제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 ‘가공’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업의 산업화와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김복자 광양시 농식품유통과장은 “가공센터의 가공률과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도약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안정하고 효율적인 생산 환경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농업과 가공의 연계를 넘어 농촌 경제를 더욱 튼튼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중심 거점으로서 가공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 여름엔 강진으로 ‘촌캉스 푸소’에서 자연과 함께

강진군이 2025년 여름을 맞아 도심 속 무더위를 피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 ‘촌캉스 푸소’를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진에서의 여름휴가 계획을 세워 푸소(FU-SO)체험 농가에서 무료로 체험하며 바캉스를 즐기는 것이 핵심이다.

촌캉스 푸소는 7월22일부터 9월1일까지 운영되며, 푸소예약 홈페이지(fuso.or.kr)를 통해 응모하면 총 100명을 선정, 무료 체험 기회를 준다.

이번 촌캉스 푸소는 강진의 대표 여름 관광 자원과 연계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매축제, 강진 3대 물놀이장, 가우도 야간 경관, 월출산 금릉계곡과 동백숲 등 시원한 자연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푸소체험 농가를 추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체험객에게 최적의 여름휴가를 제공한다.

촌캉스 푸소 참가자는 강진에서 체험하는 동안(2박3일 또는 6박7일) 푸소 농가에서 숙박과 음식체험을 진행



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총 지원금의 20%는 강진 지역 내 소비를 해야 하고, 체험 후기를 등록해야 한다. 응모는 푸소 예약 홈페이지(강진푸소'검색)에서 비밀댓글 방식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내용을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관광체육국 문화관광과 푸소팀(061-430-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 연꽃 만개한 큰고니 복원습지, 순천시 치유의 습지로 피어나다

### 생태복원과 함께 시민과 철새 모두의 쉼터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큰고니 복원습지에 여름 연꽃이 만개하면서, 다가올 겨울철 큰고니의 안정적인 서식처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문화관에서 무진교 방향으로 약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큰고니 복원습지는 2024년 국가유산청 국비 지원을 받아 기존 농경지 25,000㎡를 생태복원형 습지로 전환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연 뿌리 3,300주가 식재돼 수생생물과 철새의 먹이원 및 서식지로 조성됐다.

연꽃은 6월부터 피기 시작해 현재는 습지를 가득 채운 연꽃 군락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생태경관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치유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만은 매년 겨울 천연기념물 제20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국제적 보호종 큰고니의 주요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큰고니는 새싹매자거나 연꽃의 알뿌리 등을 먹이로 삼는 겨울 철새로, 올해도 순천만 일원에 많은 개체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조류 전문가는 연꽃 복원습지를 둘러본 뒤 “내가 큰고니라고 이곳에 살겠다”는 말을 남겼을 만큼 먹이 자원과 경관, 생태적 안정성이 뛰어난 서식지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꽃 복원습지를 통해 생태적 기능 회복과 철새 서식지 기반 조성을 동시에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순천만과 인근 내륙습지를 연계한 생태축 복원과 더불어 자연 기반의 치유관광 지원을 확충해 철새와 시민 모두가 머물고 싶은 웰니스 생태도시 순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 영광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교육 성황리에 마쳐

### 관내 GAP 신규·갱신 농가 대상 교육 실시 및 인증 확대 기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영광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본교육을 9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신규 인증 및 갱신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GAP 제도의 개요부터 인증 기준,

농약 안전 사용,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위생 관리 등 실무 중심의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교육 수료 후, GAP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심사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인증 유지가 가능하다.

다. 한편, 영광군은 인증 신청에 필요한 수

수료 및 안전성 분석비 전액 지원, GA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약 안전 보관함 지원사업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GAP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은 물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 화순군, '2026 농가 경영개선 공모사업' 대상자 모집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업인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도 농가 경영개선 사업' 공모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은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과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은 작목별 생산 기반을 갖

춘 농가가 전남 최고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우수 경영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생산비 절감, 유통 개선, 부가가치 향상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이 가능하며, 개소당 사업비는 1억 원(보조 80%, 자부담 20%)이다.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3년 이상 경영기록장 기장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개소

당 사업비는 1,200만 원(보조 80%, 자부담 20%)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8월 13일까지로 화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관심 있는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일하고 싶은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해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